與 '호남예산 · 선거구제' 당근 전략…국민의당 설득

"국민, 내부서 친안-반안 갈등"…협조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초과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호남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여야 3당 회동 전 입장을 타진했다. 이날 만남은 우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 쟁점마다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크다는 판단하에 국민의당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계산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에서 한국당은 너무나 우리와 간극이 너무 넓다. 대부분 반대 아니면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결국은 국민의당이 협상의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근'을 제시하는 모습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함께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즉각 1조원 이상이 추가되는 2단계 노선을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 숙원 사업인 새만금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소속 의원 지역구에 돌아갈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짭짤한 부수입'도 안기는 모양새다.

이날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말한 뒤,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친안철수-반안철수 세력간의 갈등으로 예산안을 발목 잡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호남고속철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줬음에도 안철수 대표 측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얘기만 잘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 대표가 시간을 끌면서 보이콧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취임 100일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다당제 정착 · 타협의 정치 나아갈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4대 정치개혁과제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명분을 강화하는 튼튼한 제3지대 지형을 만들어 다당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 지지층을 넓혀가고 그 힘으로 현재 정치구도를 재구성해서 양당제로의 회귀 흐름을 차단해야만 한다"며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이 4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서야만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선 다당제 구축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다당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적이 두번 있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복귀했다"며 "이런 것이 바로 다당제의 힘이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음 과제로는 '한국정치의 세력교체와 인물교체'를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한다"며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을 노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수권 정당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30~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안 대표는 ▲지역구도 극복, 지역감정 치유 ▲국가기관 정치개입 등 박제화된 정치 이념 탈피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최근 불거졌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번주는 예산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는 이미 진행 되고 있다. 당분간 그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당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 안 대표는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씩 축적되다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민심의 흐름이 표출되고 그러면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경험들을 지난 5년간 수차례 해오고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지 묻자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표 경선 때부터 한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은 다 똑같은데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일렀다.

뉴시스

이주영 · 한선교 · 조경태 원내대표 선거 '단일화 합의'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에 나경원 의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한선교(왼쪽부터), 이주영, 조경태 의원이 이달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중립지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5선), 한선교, 조경태(이상 4선) 의원은 4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 '중립지대 단일화 후보'는 향후 책임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세 의원과 앞서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회동을 갖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이같이 단일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의원은 "오늘 저를 포함한 세 의원이 모여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고 큰 진전을 봤다"며 "향후 중립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정한 경선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한국당 중립의원 모임' 직후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중립후보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로 인해 당이 다시 분열의 길로 가선 안된다. 계파청산과 사당화 방지는 우리 당을 향한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라며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중립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3명의 중립후보들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갖는다. 이후 같은날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단일화 후보를 결정한다.

하태경 "한국당과 통합 논의 진전 없는 상황"

"보수대통합 없다 공식 발표할 수도"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4일 "사실상 지금의 자유한국당과는 (통합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의원들이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거고 '보수대통합은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이대로 두면 매일 싸움만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과 반드시 연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솔직히 우리 당내에 다수파는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대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소수만 한국당과의 통합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자체 내부싸움을 수습하고 입장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을과 달서병 중 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맡겠다고 공식화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홍 대표는 결국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대구에 지역구 하나 차지하려고 한다"며 "보통 제2당의 대표 또 본인 이야기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어려운 험지에서 승부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